

# 다니엘서 - 번호 37

본래의 진리 회복: 윌리엄 밀러의 꿈과 말세의 예언적 부흥을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1-01

윌리엄 밀러의 꿈은 책 'Early Writings' 안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동일한 예언적 분석과 적용의 대상이 된다. 그 꿈은 수년 동안 Future for America에 의해 여러 차례 제시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1798년 '끝의 때'에 열렸던 '지식의 증가'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 두고자 한다. 그 꿈은 증가된 지식을 대표했던 그 기별의 역사를 다루며, 첫째와 셋째 천사 기별의 운동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보여준다.

윌리엄 밀러의 꿈은 그의 사역을 드러내며, 그의 사역은 고대 이스라엘 초기의 모세의 사역으로 예표되었다. 말세에 이루어질 밀러의 꿈의 성취는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으로 예표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은 영적 이스라엘의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을 대표했다. 밀러의 꿈에서는 말세에 성취될 사역이 '먼지술을 든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말세에 있을 한밤중 외침의 성취에 대한 예언으로 밀러의 꿈을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밀러의 꿈에서 '먼지술을 든 사람'의 사역을 예표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주목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요소는, 그분이 모세 시대부터 묻혀 있던 진리들의 봉인을 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원래의 진리들을 더욱 크게 드러내셨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밀러의 꿈을 성취할 때, 밀러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진리들이 그 본래의 이해를 넘어 확장될 것이라는 모범을 보이셨다.

구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전통과 꾸며낸 이야기라는 잡동사니로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그렇게나 덮어 버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미신과 오랫동안 간직해 온 오류의 잡동사니를 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을 진리의 체계 속에 제자리에 놓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분은 전통과 의식의 잡동사니를 치워 버리는 비슷한 일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분이 이 일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미신과 오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맡겨졌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

오늘날 먼지 술을 든 사람(그리스도)은 유다 지파의 사자(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시대에 이루신 것처럼, "전통과 의식의 쓰레기를 치워 버리는 유사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밀러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에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던 진리의 귀한 보석들이 잡동사니와 가짜 보석들로 덮여 버렸다. 그 보석들은 말세의 한밤중 외침의 기간 동안 잡동사니 속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더 큰 상자에 다시 놓여야 했다. 왜냐하면 밀러가 그 더 큰 상자 안의 회복된 보석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매우 기뻐서 외쳤고, 그

외침이" 그를 깨웠기 때문이다. 밀러의 꿈은 첫째 천사의 한밤중 외침 3년 후인 1847년에 일어났으므로, 그 꿈에서의 그의 깨어남은 말세의 한밤중 외침이다. 그 한밤중 외침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되어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어 있던 두 증인이,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함께 결합되고 생명을 받아 살아난 뒤 기치로 들어 올려질 때 선포된다. 밀러의 꿈은 그 거리에서, 그리고 그가 "자기 방"이라고 지칭한 바로 그 동일한 골짜기에서 성취된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밀러는 주님께서 재림주의의 원래 진리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의 꿈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리들이 문히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전통과 관습의 쓰레기를 치워 내는 이 현상은 고대 이스라엘 말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윌리엄 밀러의 꿈의 최종적 성취를 예표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그분은 자신의 일을 "우리의 일"로 규정하셨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미신과 오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윌리엄 밀러의 꿈은 본래의 진리의 발견과 제시와 배척, 그리고 회복을 지목한다. 회복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진리의 체계" 안에 정립하셨다. 윌리엄 밀러에게 "진리의 체계"는 이교주의와 교황권이라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그의 이해였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체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종교를 본보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스려야 할 원칙들을 높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큰 빛을 받아 온 자들 속에 거짓이 너무도 깊이 뿌리내려, 그들은 더 이상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진리를 위해 전통을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들은 하늘의 스승을 거절하였고, 자기들의 관습과 고안을 지키고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전통이 흔들리고 새 질서가 들어올까 두려워 진리를 연구하기를 꺼린다. 인류는 늘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반면, 신성하고 영원한 것은 분별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7쪽.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면, 진리 대신 전통을 자리 잡게 했던 인간의 사상과 지식을 숭상하는 "똑같은 정신"을 발견하실 것이다. 밀러의 꿈에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일을 이루시려고 먼지술을 든 사람으로 오신다. 그가 먼지술을 든 사람으로서의 일을 마치실 때, 밀러로 대표되는 두 증인들이 큰 외침의 음성에 깨어남에 따라, 본래의 보석들은 태양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Miller에게 주어진 진리의 체계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의 예언적 구조였고, Future for America에 주어진 진리의 체계는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세력의 예언적 구조이다. 상자에 부착되어 있던 "열쇠"는 봉인이 풀려 Miller에게 주어졌고, 그 후 Future for America에게도 주어진 특정한 방법론이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지식의 열쇠는, 구약 성경에 담긴 지혜의 보물창고를 열기 위해 그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할 이들에 의해 빼앗겨 버렸다. 랍비들과 교사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사실상 닫아 버리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방치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까 하여 한 번에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요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다. 또한 생각을 심어 주려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예언 속에 있는 오래되고 익숙한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옛 진리의 보석들을 처음 주신 분이셨다. 원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진리들은 제자리를 잃었다. 본래의 자리에서 떼어져 오류의 틀 속에 놓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그 귀한 보석들을 진리의 틀 안에 다시 바로잡아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었다.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친히 주셨던 진리의 원칙들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묻혀, 겉으로는 멸절된 듯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오류의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내시고, 새롭고 생명력 있는 힘을 부여하시어, 귀한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히 굳게 서 있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오래된 진리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남에게서 가장 작은 부분 하나라도 빌릴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는 그것들이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세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을 심어 넣으셨고,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죽어 버린 진리들을 재정리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후대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더욱 힘 있게 하셨다. 진리들을 폐물 더미에서 건져 내어 본래의 신선함과 능력 이상으로 다시 세상에 주실 권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원고 발표집 13권, 240, 241쪽.

마지막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끝에서 사용하신 열쇠가 구약을 여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밀러의 방법론이라는 열쇠는 구약과 신약의 상자를 열었지만, 말세에 이르러 그의 꿈의 결말에서는 그 상자가 더 크다. 말세의 방법론의 열쇠는 구약과 신약뿐 아니라 예언의 신도 연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 해제는, 밀러의 꿈에서 '먼지 술을 든 사람'으로 묘사된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성취된다. 화잇 여사는 '먼지 술을 든 사람'의 일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난다고 밝힌다.

주님께서 1월 26일에 내게 환상을 보여 주셨다. 나는 그것을 전하려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몇몇이 어리석고 잠들어 있으며, 겨우 반쯤 깨어 있을 뿐이라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쓸려 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무서운 위험을 보고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파멸이 거대한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오고 있다.' 나는 천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여 그것들과의 끈을 끊고 그것들을 바쳐 사자들이 영적 양식이 없어 죽어 가는 굶주린 양들을 먹이러 가는 길을 서두르게 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현재의 진리가 없어 죽어 가는 가련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을 보았을 때, 그 광경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천사에게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대의가 그들의 재산 일부를 요구할 때, 예수께 나아왔던 그 청년처럼[마태복음 19:16-22], 그들이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았고, 머지않아 밀려드는 재앙이 지나가 그들의 소유를 모조리 쓸어 가 버릴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세속의 재물을 희생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기에는 너무 늦을 것임을 보았다." Review and Herald, April 1, 1850.

'넘치는 채찍'은 곧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상징이며, 밀러의 꿈에 나오는 먼지 술을 든 사람의 일은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분이 방을 깨끗이 하신 다음, 보석들을 더 큰 상자에 다시 던져 넣으시고, 그러자 그것들은 태양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이들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 정한 기한이 차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들어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일에 있어서 그는 자기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그들이 열 배나 뛰어난 것을 알았다. 다니엘서 1:18-20.

다니엘에게 "날들의 끝"은 느부갓네살이 판결을 내린 시금석을 의미했으며, 그 시험은 마지막 때의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들은 마지막 때에 회복될 때, 처음 인식되었을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 진리들과 마지막 때에 그 진리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은 늦은 비, 곧 한밤중의 외침의 반복 동안에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고 있다. 나는 늦은 비가 한밤중의 외침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열 배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Spalding and Magan, 5.

본래의 진리는 '줄에 줄을 더하는' 늦은비의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회복된다. 일단 회복되면, 그 본래의 진리는 밀러가 처음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본래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방법론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바벨론의 방법론을 먹는 자들보다 '열 배' 더 나은 경험을 얻는다.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에게 쏠려나가는 자들은 본래의 진리를 덮어 버린 전통과 관습에 집착하여, 그 전통과 관습의 오류와 함께 제거되는 자들이다.

거짓 교리는 우상이다.

"진리를 거절할 때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음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주신 분의 권위를 부인한다. 거짓 교리와 이론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은 나무나 돌로 우상을 빚어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다." 대쟁투, 584.

에브라임의 시험 기간이 끝났음을 표시한, 에브라임에게 내려진 그 선언은 빗자루를 든 사람이 바닥을 쓸 때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에 대한 진리를 강조한다.

에브라임은 우상에 매여 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호세아 4:17.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 주었듯이,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우둔하고 잠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잇 자매의 염려는 그들의 준비 부족과 "현재의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 부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의 염려는 본래의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트집만 잡던 그 시대 유대인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관심의 표현이었다. 밀러의 꿈은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로 예표되어 온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끝을 가리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한다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에 따라 그것을 해석했다. 그들의 관습과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봉인된 책과 같이 되어, 그들의 이해에 닫혀 있었다. 시대의 징조, 1905년 5월 17일.

1863년 이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위에 점진적인 어둠이 내려앉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그들에게 봉인된 책과 같아졌다.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에서 풀리며, 그것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일으키고, 관습과 전통이라는 우상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임박한 일요일법령 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에게 무한하신 구속주가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는 진리의 보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보석들은 사탄이 직접 고안해 낸 쓰레기와 전통과 이단의 더미 아래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의 계략들은 그를 믿는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리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주문을 걸어,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Review and Herald, 1898년 8월 16일.

밀러의 꿈은 "본래의 진리"가 어떻게 확립되고, 그 뒤에 거절되었다가, 마침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 준다.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Dirt Brush Man"이 장면에 등장해 본래의 진리를 다시 확립하고 그것들을 "열 배" 더 밝게 만든다.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앞서게 되는 한밤중의 외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한밤중의 외침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 처녀들을 깨우고 분별해 내며, 마찬가지로 밀러운동의 역사에서도 한밤중의 외침이 조사심판의 개시보다 앞섰다. 보석들이 더 크고 회복된 상자에 다시 던져 넣어질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는데, 그 사건은 바닥이 말끔히 쓸려진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류의 먼지와 잡동사니가 진리의 귀한 보석들을 파묻었으나, 주님의 일꾼들은 이 보물들을 파내어 드러낼 수 있으므로, 수천 명이 그것들을 기쁨과 경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겸손한 일꾼 곁에 서서 은혜와 신적 조명을 베풀 것이며, 수천 명이 다윗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랜 세월 보이지도 주목받지도 못했던 진리들이, 밝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에서 눈부시게 드러날 것이다. 진리를 듣고도 거절하고 짓밟아 온 교회들은 대체로 더욱 악을 행하겠으나, '지혜로운 자들', 곧 정직한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그 책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이른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하늘로부터 외치는 천사의 큰 외침에, 오랫동안 세상을 사로잡아 온 무감각에서 수천 명이 깨어나 진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5년 12월 15일.

그때 깨어날 "수천 명"은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떼를 나타낸다. 이는 "큰 외침"이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먼지 솔 사람"의 일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진행되어 왔고, 2023년 7월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져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갖추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여는 열쇠임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감추어진 의미 위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서로 다른 본문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이 미치는 바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경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 주석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주석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쌓인 방대한 글더미 아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려면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을 하나의 완전한 진리의 사슬로 엮어 모으는 일을 얼마나 조금밖에 해 오지 못했는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이 진리의 보석들은 표면에 놓여 있지 않다. 악의 연합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주도적 지성은 진리를 시야에서 숨기고, 위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원수는 교육 과정들을 통해 하늘의 빛을 흐리게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니 그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보석들은 계시의 들판에 흩어져 있으나, 그것들은 인간의 전통과 사람들의 말과 계명 아래에 묻혀 버렸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이는 사탄이 사람의 말과 업적이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복음을 세상에 주셨다. 이 신적 방편을 통해, 생명의 샘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위해 기쁨과 상패함이 넘치는 하늘의 위로와 영속하는 위안의 샘들이 열렸다. 아직 발견되어야 할 진리의 광맥들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악으로 흐려진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12월 1일.

밀러의 꿈에서 먼지 솔을 든 사람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오류를 제거하고 본래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류의 제거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류가 창밖으로 쓸려 나갈 때 그 오류는 그 오류에 붙어 있으려 선택한 자들도 함께 데려가기 때문이다. 먼지 솔을 든 사람이 이루는 분리의 사역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도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증언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 보물들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수천 명이 그것들을 기쁨과 경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화이트 자매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들이리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들로 네게 돌아오게 할지언정,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 15:19.

예레미야서의 그 본문의 맥락은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을 겪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는 이는 단지 "Dirt Brush Man"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들의 일도 그러한데,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자들로 묘사된다. 그들이 분명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만일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서고, 이후에 그분의 입이 될 때, 그들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Dirt Brush Man"의 일에는 지혜로운 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밀러의 꿈에서 "Dirt Brush Man"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정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실 때에도 또한 묘사된다.

"이 정화 과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손에 킴 드신 그분은 그분의 성전을 도덕적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증언, 372, 373.

최종 "정련 과정"은 2023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말라기 3장의 정련 과정입니다.

말라기 3:1-4가 인용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련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군의 주께서 이 일에 착수하셨다. 이 과정은 영혼에게 가장 큰 시련이지만, 더러움이 제거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주께 의로 드리는 예물을 올려 드리도록 하기 위해, 시련은 없어서는 안 된다. 영혼을 정련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종들이 그토록 낮아지고 자아에 대하여 그토록 죽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94년 4월 10일.

밀러의 두 번째 꿈은 본래의 진리들의 회복과 흩어졌던 백성의 동시적인 회복을 가리킨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그의 왕국의 회복을 가리킨다. 밀러의 꿈은 본래의 진리들이 '흩어졌다'는 용어로 표현되면서 묻혀 버린 문제를 다룬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일곱 때'의 상징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일곱 때'의 '흩어짐'에 관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1798년 종말의 때에 놓이며,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을 대표한다. 밀러는 1798년에 '지혜로운 자들'을 상징한다.

다음 기사에서 밀러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견해를 달리해야 하거나,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의견과 다름을 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드러내야 한다. 진리는 어떤 검증에도 견딜 수 있으니, 우리는 차분하고 공정하게 처신할 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리는 연구하면 할수록 그 빛이 더욱 밝게 나타난다. 주께서는 거칠고 가혹함이 배어 있는 모든 것을 못마땅히 여기시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여 그들을 가장 악의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 책망을 내리신다. 온 하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을 보던 것과 같이 바라보며,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단정한다. 진리의 원수들이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는 없다. 그들이 진리를 짓밟고 넘어뜨린 뒤 잡동사니로 덮어버렸다고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 몇몇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처럼 그 잡동사니를 털어내고, 진리를 진리의 체계 속에서 합당한 자리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진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것에 반대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오직 오류와만 싸우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하고 말해진 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편견 없는 귀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진리에 맞서 싸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council (sic)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있다. 큰 빛과 큰 기회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한 자들 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감히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 선다면, 홀로 서도록 요구받을 때에도 정직함 가운데 보존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순결과 공정함 가운데 담대히 서서, 부패되지 않은 의의 원칙들을 위해 싸우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정의가 거리에 쓰러지고 공평이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그들을 붙드시리라. 그들은 무엇이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생애에 합당한 것인지 이해할 것이며, 무지와만 아니라 교양 있고 경험 많은 자들, 그리고 궤변의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자들에게까지 맞서게 될지라도, 정신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원칙들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오류가 진리에 대항하는 이 모든 다툼 가운데서도, 그들은 보존되어, 원수들이 반박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행로를 지켜가도록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와도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정신을 간직한 채, 원칙에 있어 바위처럼 굳건히 설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 대한 참된 증거를 굳게 붙잡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온갖 반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아침을 경멸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비난을 혐오할 것이다. 그것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기를 품거나 자기 높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첩자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일을 하는 데 경멸받는 유대인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의 말에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를 말하도록 도발하여 한 마디 말 때문에 그를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형제들을 질문 공세로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다. 흠 미셔너리, 1894년 9월 1일.